

## 3. Extend Your View of Art

## Kim Whanki, Painter of Korean Beauty

Kim Whanki, one of the most <sup>1)</sup>[belove/beloved] Korean artists, is <sup>2)</sup>[considering/considered] the leading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ers. He is more than <sup>3)</sup>[just/justify] that, however. All his life, he devoted <sup>4)</sup>[him/himself] to <sup>5)</sup>[discover/discovering]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Moreover, he was a man <sup>6)</sup>[who/whom] never ceased <sup>7)</sup>[challenge/to challenge] himself and <sup>8)</sup>[grow/growing] as an artist.

Kim Whanki was born in 1913, on a small island in South Jeolla Province. <sup>9)</sup>[For/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e spent most of his <sup>10)</sup>[adolescent/adolescence] years in Seoul and then studied painting in Japan. It was during this time <sup>11)</sup>[what/that] he became familiar <sup>12)</sup>[for/with] new trends in Western art, <sup>13)</sup>[include/including] Abstract painting.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he became both a promising painter and <sup>14)</sup>[respect/respected] professor at an art college in Seoul.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he went to Busan for safety. His paintings *Shanty* and *Refugee Train* portrayed the hard life of the common people <sup>15)</sup>[during/while] wartime. However, these paintings are not <sup>16)</sup>[depress/depressing] images. Bright colors and simple lines show hope for life among people <sup>17)</sup>[who/of whom] did not give in 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김환기,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린 화가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 예술가 중 하나인 김환기는 한국 추상 화가 1세대 주도적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한평생 그는 한국 아름다움의 정수를 발견하는 데에 스스로를 헌신했다. 더 나아가, 그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김환기는 1913년 전라남도 지역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는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고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그가 추상화를 포함한 서양 미술에 친숙해 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그는 서울의 한 예술 대학에서 유명한 화가이자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안전을 위해 부산으로 갔다. 그의 그림인 〈판잣집〉과 〈피난 열차〉는 전시회 일반인들의 어려운 삶을 그렸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침울한 이미지들이 아니었다. 밝은 색과 단순한 선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18)[Return/Returning] to Seoul after the war, Kim Whanki felt a strong desire 19)[capturing/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beauty 20)[finds/found] in traditional Korean art. He collected old Korean paintings and pottery. He especially loved large white porcelain moon jars. When he was asked 21)[how/why] moon jars 22)[attracting/attracted] him so much, he said, "Korean jars 23)[are broad/have broadened] my idea of beauty. The jars are like curious textbooks for my paintings." Along with jars, he often included mountains, plum blossoms, and the moon 24)[like/as] subjects in his paintings. Paintings like *Jars and Plum Blossoms* and *Jar and Moon* 25)[represent/represents] his love of Korean pottery and other traditional 26)[objections/objects]. At the time, his painting style was semi-abstract; viewers could see certain forms in his paintings 27)[through/although] the objects were 28)[simplify/simplified].

29)[By/While] the early 1950s, although Kim Whanki 30)[became/had become] successful as an artist, he was not satisfied 31)[for/with] being an 32)[outstand/outstanding] painter only within Korea. In 1956, he 33)[resigned/being resigned] from the college and went to Paris, 34)[when/where] he lived for three years. He concentrated on 35)[deliver/delivering] the beauty of 36)[tradition/traditional] Korean objects on canvas to the people of France. 37)[While/During] this period, objects 38)[gave/were given] more simplified shapes, and his art became more 39)[abstract/abstraction]. In his famous work *Song of Eternity*, he 40)[included/excluded] natural objects from the sipjangaeng, the 10 symbols of eternal life, such as water, stones, mountains, clouds, and pine trees. It 41)[being praise/was praised] by art critics for combining Asian concepts and ideals 42)[by/with] abstraction.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갔을 때, 김환기는 전통적인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는 오래 된 한국의 그림과 도자기를 모았다. 그는 특히 큰 백자 달항아리를 좋아했다. 왜 달항아리가 그의 마음을 끄는지 물었을 때, 그는 "한국의 항아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생각의 폭을 넓혀 주었다. 항아리들은 내 그림을 위한 특이한 교과서들과 같다." 라고 말했다. 항아리와 함께, 그는 종종 산, 매화, 그리고 달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항아리와 매화*, *항아리와 달*의 그림은 한국의 도자기와 다른 전통적 사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 당시 그의 화풍은 반-추상적이었다; 사물이 단순화 되었음에도 보는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를 볼 수는 있었다.

1950년대 초기까지, 김환기는 예술가로서는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뛰어난 화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1956년 그는 대학에서 퇴직하고 그가 이후 3년을 살았던 파리로 갔다. 그는 프랑스의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사물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옮겨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사물은 더욱 단순화되었고 그의 예술은 점차 더 추상적이게 되었다. 그의 유명한 작품 '영원의 노래'에서 그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자연물인 물, 돌, 산, 구름, 소나무와 같은 십장생을 넣었다. 이것은 예술 평론가들로부터 아시아의 개념과 이상을 추상주의와 결합했다는 칭송을 받았다.

Kim Whanki returned to Seoul in 1959 and quickly <sup>43)</sup>[regains/regained] his fame as a prominent artist. In 1963 at the age of 50, he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sup>44)</sup>[being invite/to be invited] to the São Paulo Art Biennale in Brazil. Meeting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sup>45)</sup>[see/seeing] their works, he decided to go directly from São Paulo to New York <sup>46)</sup>[challenging/to challenge] himself and <sup>47)</sup>[extend/extending] his artistic boundaries.

Life in New York was not easy. In the beginning, he <sup>48)</sup>[received/represented] negative reviews from critics. <sup>49)</sup>[Once/One] an art dealer lied to him and sold his paintings <sup>50)</sup>[without pay/without paying] him. On another occasion, a group of paintings <sup>51)</sup>[was/were] lost during an exhibition. With loneliness and financial difficulty, he tried <sup>52)</sup>[to find/finding] a way to <sup>53)</sup>[survive/survival] in New York as an artist.

During his 11 years in New York, Kim Whanki's style <sup>54)</sup>[eventual/eventually] <sup>55)</sup>[reached/reached to] complete abstraction. He gradually took away figures and filled his canvases with basic elements <sup>56)</sup>[such/such as] dots and lines. His masterpiece, <sup>57)</sup>[complete/completed] in 1970, *Where, in What Form, Shall We Meet Again?*, is <sup>58)</sup>[covered with/covers by] thousands of blue dots. The title <sup>59)</sup>[taking/was taken] from a famous poem by Kim Kwangsup, <sup>60)</sup>[which/what] is about looking at the stars and <sup>61)</sup>[long/longing] for loved ones. Kim Whanki explained, "The dots are the faces of all my friends in Korea. The faces I was longing for became the stars in my mind and the dots in my painting." <sup>62)</sup>[Starting/Being started] with that work, he began to use only dots and <sup>63)</sup>[create/created] his own unique style <sup>64)</sup>[calls/called] "dot painting."

김환기는 1959년 서울로 돌아왔고 저명한 예술가로서 그의 명성을 빠르게 되찾았다. 1963년 50세의 나이로 그는 브라질의 São Paulo 예술 비엔날레에 초대된 최초의 한국인 예술가가 되었다.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그의 예술적 경계를 넓히기 위해 São Paulo에서 바로 뉴욕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뉴욕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는 평론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번은 한 미술 중개인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그림을 판 일이 있었다. 또 다른 때에는, 전시 중에 그림 여러 장이 분실되었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는 뉴욕에서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뉴욕에서의 11년 동안, 김환기의 스타일은 결국 완전한 추상화에 이르렀다. 그는 점진적으로 형상을 없앴고 그의 캔버스를 점이나 선과 같은 기본적 요소로 채웠다. 1970년에 완성된 그의 걸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수천 개의 파란 점들로 뒤덮여 있다. 제목은 김광섭의 유명한 시에서 따 왔는데, 이는 별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김환기는 "점들은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의 얼굴이다. 내가 그리워하던 얼굴들은 내 마음 속에서 별이 되었고 내 그림에서 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 작품에서 시작해, 그는 점들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화"라고 불리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In dot paintings, he filled big canvases with <sup>65</sup>[countful/countless] dots. Most of these paintings were in his characteristic blue tones, <sup>66</sup>[which/of which] <sup>67</sup>[representing/represented] the color of the sea near his hometown.

Kim Whanki passed <sup>68</sup>[by/away] in New York in 1974. Throughout his entire life, his artistic passion never grew old or <sup>69</sup>[become/became] weak. Almost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his death, but his art is still highly respected. Meanwhile, his life story helps us realize how important <sup>70</sup>[it is/is it] to be true to and passionate about our dreams and ideals.

점화에서, 그는 큰 캔버스를 셀 수 없이 많은 점들로 채운다. 대부분의 이 작품들은 그의 특징적인 푸른색 톤인데, 그것은 그의 고향 근처의 바다색을 대표했다.

김환기는 1974년 뉴욕에서 작고했다. 그의 인생 전체에서, 그의 예술적인 열정은 결코 늙거나 약해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 이후 거의 반 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높이 존경받는다. 한편, 그의 인생 이야기는 꿈과 이상에 대해 진실하고 열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도록 도와준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년 11월 15일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답**

- 1) [정답] beloved
- 2) [정답] considered
- 3) [정답] just
- 4) [정답] himself
- 5) [정답] discovering
- 6) [정답] who
- 7) [정답] to challenge
- 8) [정답] grow
- 9) [정답] During
- 10) [정답] adolescent
- 11) [정답] that
- 12) [정답] with
- 13) [정답] including
- 14) [정답] respected
- 15) [정답] during
- 16) [정답] depressing
- 17) [정답] who
- 18) [정답] Returning
- 19) [정답] to capture
- 20) [정답] found
- 21) [정답] why
- 22) [정답] attracted
- 23) [정답] have broadened
- 24) [정답] as
- 25) [정답] represent

- 26) [정답] objects
- 27) [정답] although
- 28) [정답] simplified
- 29) [정답] By
- 30) [정답] had become
- 31) [정답] with
- 32) [정답] outstanding
- 33) [정답] resigned
- 34) [정답] where
- 35) [정답] delivering
- 36) [정답] traditional
- 37) [정답] During
- 38) [정답] were given
- 39) [정답] abstract
- 40) [정답] included
- 41) [정답] was praised
- 42) [정답] with
- 43) [정답] regained
- 44) [정답] to be invited
- 45) [정답] seeing
- 46) [정답] to challenge
- 47) [정답] extend
- 48) [정답] received
- 49) [정답] Once
- 50) [정답] without paying
- 51) [정답] were
- 52) [정답] to find
- 53) [정답] survive
- 54) [정답] eventually
- 55) [정답] reached
- 56) [정답] such as

- 57) [정답] completed
- 58) [정답] covered with
- 59) [정답] was taken
- 60) [정답] which
- 61) [정답] longing
- 62) [정답] Starting
- 63) [정답] created
- 64) [정답] called
- 65) [정답] countless
- 66) [정답] which
- 67) [정답] represented
- 68) [정답] away
- 69) [정답] became
- 70) [정답] it is